

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
| <br>금융위원회 | <b>보 도 자 료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<br>금융감독원 |
|  | <b>보도</b>      | <b>2018. 12. 13.(목) 조간</b> | 배포 |  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<b>책 임 자</b> | 금융위 보험과장<br>하 주 식(02-2100-2960)      | <b>담 당 자</b> | 금융위 보험과<br>권기순 사무관(02-2100-2963)       |
|              |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<br>박 종 수(02-3145-7240) |              | 금감원 보험리스크총괄팀장<br>박진해 부국장(02-3145-7242) |

## **제 목 :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**

◆ 그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제도(RBC)와 별도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, 자본력 수준을 관리하는 절차를 운영해 오

- 글로벌 기준 등을 참고하여 '17년에 체계화된 제도(이하 ORSA\*)를 도입하였으며, 금번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

\*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

◆ 보험회사의 ORSA제도 실시는 IMF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FSAP\* 평가항목 중 하나로, '19년 예정되어 있는 동 평가에도 대비할 필요

\*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: IMF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진단하고,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('99.5월)

### **1. 추진 배경**

- 보험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존과 다른 다양한 리스크가 출현함에 따라, 보험업법규에서 제시하는 감독기준 이외에 보험회사가 자체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

\* 미국,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'15년부터 ORSA제도 시행(참고3)

- 그간,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충분한 부채(책임준비금) 및 추가자본(지급여력)이 적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왔고 보험회사도 지속 노력
- 다만, 보험회사별로 보험상품, 자산운용 전략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전략에의 활용도 미흡하다는 지적

-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('14.7월)으로, '17년부터 “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”(ORSA)를 도입
-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·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(RBC)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,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(참고1)

◇ 계량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①비계량리스크(법률·평판 등)까지 포괄하여 중요리스크를 선정

◇ ②자체 모형으로 위험을 측정, ③경영계획 및 위기상황까지 반영하여 회사의 자본력을 평가, 그 결과를 경영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

※ (예시) 그간 질병·건강보험 상품개발시 영업경쟁만을 고려하였다면, 앞으로는  
 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·분쟁시 비용유발 항목 등 중요리스크 요인도 고려,  
 ② 책임준비금·지급여력 산출시 회사의 경험치(자체 모형)를 보다 충실히 반영,  
 ③ 의료환경 및 경제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상품 설계

- 보험회사는 '17년 제도 시행에 따라 ORSA체계를 마련하였거나 또는 시행을 준비\*중이나,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(참고2)

\* 현행 제도는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측정모형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 제도시행을 유예 가능

- ☞ ORSA가 조기에 정착하여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

[ 참고 : ORSA와 지급여력제도 비교 현황 ]

|                 |        | ORSA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여력제도(RBC) <sup>2)</sup>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|
| 리스크 통제          |        | 이사회, 경영진의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리스크 평가          | 측정모형   | 보험회사 자체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RBC 표준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중요 리스크 | 계량 및 비계량(법률·평판 등)을 포괄하여 회사가 자체 선정       | 계량리스크 중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급여력 평가 (자본적정성) |        | $\frac{\text{지급여력금액}}{\text{필요자본}^{1)}$ | $\frac{\text{지급여력금액}}{\text{RBC 요구자본}^{1)}$ |
| 평가결과 보고         |        | 회사 이사회 보고(승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독당국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1) RBC는 법규에 근거, ORSA는 경험치 등을 활용한 자체 모형으로 리스크 산출

주2) 지급여력제도(RBC)는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전면 개정시 신지급여력제도(K-ICS)로 대체

## 2. 주요 내용

### ① 보험회사의 ORSA 운영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('19.2분기)

-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,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,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
- 보험회사가 ORSA 운영수준을 개선하고, 향후 도입에 참고하도록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표
- 금년중에 평가지침을 마련하고, '19년부터 전년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시행

#### < 공표 내용(예시) >

| 구 분  | 내 용  |
|------|--|
| 시행회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</li> <li>▪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</li> <li>▪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'양호'한 회사명</li> <li>▪ 각 평가수준별(양호, 보통, 미흡) 회사 분포</li> </ul> |
| 유예회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회사별 제도 시행예정시기</li> <li>▪ 제도 도입준비상황이 '양호'한 회사명</li> </ul>  |

### ②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실적 반영('19년)

-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

### ③ 보험회사별 운영실태 평가결과 피드백('19년~)

- 매년 ORSA를 최초로 시행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(문제점 지적 보다는 컨설팅)하고, 그 결과 및 개선필요 사안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, 해당 보험회사에 개별 제공

### 3. 기대 효과

-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에 기여
  -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보험회사가 ORSA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
  
- 지급여력제도의 내부모형 도입에 기여
  - '내부모형 승인기준'에 ORSA 운영경험 등 질적 평가항목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ORSA제도 운영의 활성화는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
  
-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
  - 향후 IMF의 FSAP 평가시,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제체계를 지속 개선\*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\* 지난 2013년 IMF는 우리나라 보험부문에 대한 FSAP평가에서 ORSA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

- **[정의]** 보험회사가 스스로 회사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측정모형을 구축하고,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경영계획까지 반영한 리스크를 산출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,
  - 현재의 리스크통제수준이 장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를 의미
- **[운영]** 보험회사는 연 1회 이상 ORSA체제에 의해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,
  -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성향, 경영환경 및 자체 지급여력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경영계획을 승인하는 등 리스크중심 경영의 최종의사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
- **[평가내용]** ① 이사회 등의 리스크통제구조, ② 중요 리스크의 인식과 평가, ③ 가용자본 및 리스크량을 이용한 자체 지급여력 평가, ④ 평가결과의 활용 등으로 구성
  - (리스크 통제구조) 전사적 관점에서 이사회·최고경영진 등의 리스크 통제구조가 적정한지 여부
  - (중요 리스크) 계량화할 수 있는 리스크(보험·금리 등) 외에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리스크(법률·평판 등)를 포괄하여 중요 리스크를 적정하기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
  - (회사별 특성 고려) 회사의 위험선호, 보험 및 투자 포트폴리오 등 회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필요자본량을 산출하고 있는지 여부
  - (미래 지급여력 평가) 미래의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리스크와 지급여력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
- **[도입효과]** 표준화된 방식의 양적 자본규제인 RBC제도로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다양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·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, 리스크통제를 강화하여 리스크중심의 경영으로 전환 유도

## 참고2

## 보험회사 ORSA 제도 운영현황

- 53개\* 보험회사 중 11개사가 '17년에 도입한 반면, 42개사는 '18년 이후로 도입을 유예하여 현재 제도 도입비율은 약 20% 수준

\* '18.6월말 현재 전체 55개 보험회사 중 철수 예정인 2개사 제외

### < ORSA제도 시행(예정) 시기별 현황 >

('18.6월말 현재)

| 구 분          | '17년  | '18년  | '19년  | '20년  | '21년  | 미확정    | 계   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
| 생보사          | 4개사   | -     | 5개사   | 1개사   | 12개사  | 2개사    | 24개사 |
| 손보사          | 7개사   | 3개사   | 3개사   | 1개사   | 2개사   | 13개사   | 29개사 |
| 도입비율<br>(누적) | 20.8% | 26.4% | 41.5% | 45.3% | 71.7% | 100.0% |      |

### 1 도입시기 유예회사(42개)

- 14개사는 '21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였고, 15개사는 '21년에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매년 유예시기를 검토할 계획으로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
- 또한, 13개사는 향후 ORSA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계획\*을 확정하지 못해 시행일정을 연기되거나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하더라도 제도 운영이 충실하지 못할 우려

\* 리스크평가방법 검토, 리스크 내부통제구조 정비, 자체 리스크측정모형 구축 등

### 2 도입 시행회사(11개)

- 회사간 ORSA 운영수준의 차이가 큰 상황으로, 5개사는 아직 ORSA 체제의 핵심사항\*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

\* 장래 경영계획을 반영한 재무건전성 영향 분석, 비계량위험을 포함한 중요리스크 평가, 자체 모형을 활용한 리스크평가, ORSA 평가결과의 경영의사결정 활용

1 해외 주요국의 ORSA제도 운영현황

- (EU) '09년 유럽의회가 승인한 「Solvency II 지침」에 리스크관리체제의 일환으로 ORSA제도를 반영하여 '16.1월부터 시행
- (미국) '12년 NAIC는 리스크중심 감독체제의 강화를 위해 「리스크 관리 및 ORSA에 관한 모델법」을 제정하여 '15.1월부터 시행
- (호주) ORSA 체계의 ICAAP\* 제도를 '13.1월부터 시행

\*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(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)

2 국내 은행권 운영현황

- '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'를 '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, 은행 운영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점검기준을 마련(시행세척)
  -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운영원칙\*을 정하고, 이를 은행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
    - \* ①이사회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, ②내부자본적정성 관리, ③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, ④모니터링 및 보고, ⑤통제구조 등에 대한 평가원칙
  - 또한, 은행의 자체평가 적정성을 감독당국이 점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감독조치(추가자본 적립요구)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 prfsc@korea.kr

